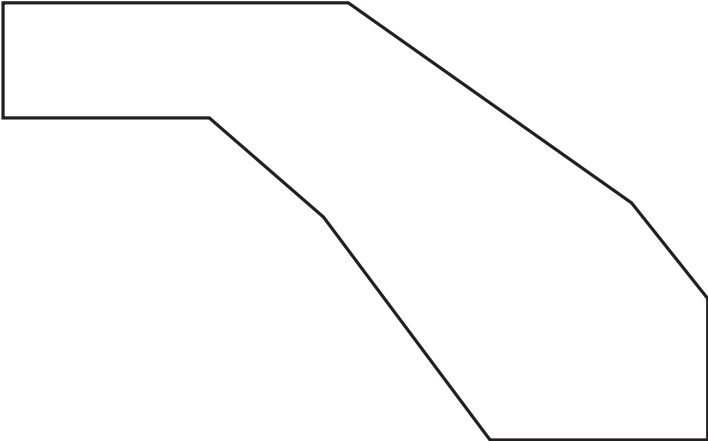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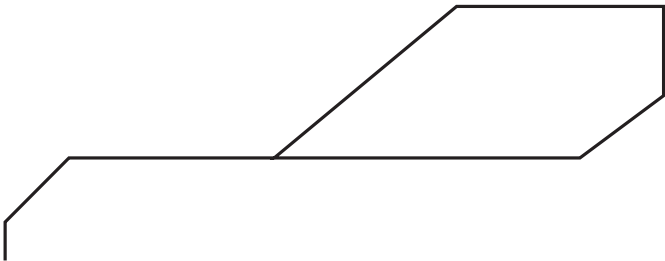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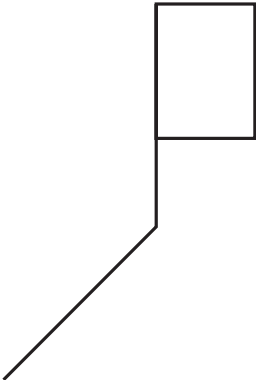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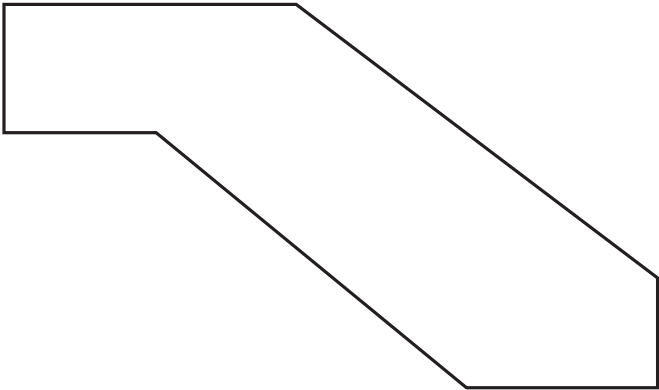


비인칭적 삶

Impersonal Life



비인칭적 삶

작가는 작품에 속한다. 그러나 작가에게 속하는 것은 한 권의 책, 불모의 단어들의 말없는 축적, 즉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없는 것일 뿐이다. 이러한 공허를 맞보는 작가는 작품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리고 얼마 더 작업을 하고, 운 좋게 좋은 순간이 오면 스스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또다시 그는 작품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가 혼자서 끝내고자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영원히 끝낼 수 없는 것으로 남는다. 그리하여 작가가 하는 일은 덧없는 헛수고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마침내 작품은 작가를 무시하고 그의 부재중에 스스로 달혀, 비인칭이 되어버린다. 작품은 그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모리스 블랑쇼,
『문학의 공간』

The writer belongs to the work, but what belongs to him is only a book, a mute collection of sterile words, the most insignificant thing in the world. The writer who experiences this void believes only that the work is unfinished, and he thinks that a little more effort, along with some propitious moments, will permit him and him alone to finish it. So he goes back to work. But what he wants to finish by himself remains interminable; it involves him in an illusory task. And the work, finally, knows him not. It closes in around his absence as the impersonal, anonymous affirmation that it is -- and nothing more.

Maurice Blanchot,
The Space of Literature

《비인칭적 삶》은 ‘작업하기’를 끊임없는 미완적 이행의 과정으로 간주하고 그 대체가능성과 변환의 지점들을 예술학교라는 공간을 매개로 살펴보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작가는 작업 과정의 어느 시점에 자신을 상실하고,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스스로가 확신과 권위를 갖고 있지 않음을 인정하게 된다. ‘나(I/Je)’라고 말하기를 포기하고 그 자리에 ‘그’ 혹은 ‘그것(it/on)’이 대신 자리를 차지할 때 작업들은 비로소 중심이 없는 어떤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다.

무언가가 되어가려는 지속적인 어떤 힘 혹은 안간힘 속에서 작가들은 주변의 사물들을 가만히 응시하고는 그것들 사이의 관계, 계열, 긴장감을 포착해낸다. 중심이 없는 빈 공간에서 개별자로서의 작가는 부재하고, 대신에 어떤 흔적들과 침묵이 있다. 요컨대 이번 전시에서는 작업 제작과정을 지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저 조용히 공간을 점유하고 있을 뿐인 흔적으로서의 사물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테면 이 전시가 취한 방법은 침묵을 통해서 말하기, 부재로 ‘있음’을 이야기하기, 정지 혹은 비활성 상태를 통해 지속되는 활성상태를 읽어내기와 같은 것이다.

임소담은 직접 제작한 소형 도자 작업을 재배치하여 이를 구체적인 스케치 없이 캔버스 위에 빠른 시간 안에 옮김으로써 매체 간 변화의 과정 중에 개입되는 어떤 고양의 순간을 포착하고자 한다. 작가에게 개인적 기억을 상기시키는 선별된 이미지들은 이 같은 매체적 변환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개별적 성격이 점차로 흐려지는 양상을 띤다. 이번 전시 출품작인 〈Winter Forest〉(2014)와 〈Blue Pot〉(2014)은 각각 밤과 낮에 해당하는 한 쌍의 작업으로도 볼 수 있다.

김다겸은 자신이 설정한 행위의 규칙을 따라 끝없이 이어나갈 수 있는 작업방식을 주로 취하는 작가이다. 그의 〈선〉(2011)은 예술학교 내의 사물들을 수집하고 앞과 뒤를 구별한 다음, 그것들을 한 방향으로 배치하여 촬영한 기념사진이다. 한쪽으로 정향된 그 사물들을 잘 살펴보면 해당 사용자의 생활의 흔적이 남아 있다.

Impersonal Life regards ‘producing artwork’ as a ceaseless and incomplete process of implementation, and is aimed to examine its substitutability and points of transformation through art schools. At a certain point during the working process, the artist loses him or herself and ends up acknowledging that they do not have the assurance and authority over what they are trying to express. A work of art cannot obtain centerless universality until ‘I/Je’ is abandoned and ‘it/on’ takes the position instead.

Within the continuous energy and urge to become something, artists quietly gaze at nearby objects and capture the relationship, affiliation and tension among them. In a centerless and empty space, an artist as an individual is absent; instead there are traces and silence. After all, this exhibition is not trying to indicatively expose the process of producing work, but to reveal it indirectly through the objects as traces that are merely occupying the space silently. In a way, the method this exhibition adopts is to speak through silence, to talk about ‘presence’ through absence and to read off a state of vitality through stillness and inactivity.

Sodam Lim relocates her small-sized ceramic works that she made, and without any concrete sketch, she transfers them onto the canvas in a very short period of time. Through this process, she seeks to capture a moment of elevation which intervenes in the process of change that the mediums undergo. Selected images that recollect the artist’s personal memories go through this kind of medium-converting process, and hence enter upon a phase in which their existing, individual characteristics gradually blur. The artworks shown in this exhibition, *Winter Forest* (2014) and *Blue Pot* (2014), can be seen as a pair of work each corresponding to night and day.

Dakyum Kim mainly adopts a working method he can endlessly keep according to the rules of action that he has established. His *Line* (2011) is a commemorative photograph he took of the objects he collected in his art school, distinguished and then arranged in one direction. If you look closely, the objects that have been arranged in one spot, have the users’ life traces.

애나 루카스와 박희자는 예술학교 안의 빈 공간과 사물들을 촬영함으로써 그곳에 스민 일종의 무기력에 관해 이야기한다. 작업 공간에 남은 사물들, 예컨대 물감이 튼 의자나 벽, 제멋대로 무리지어 서 있는 이젤, 합판으로 된 칸막이, ‘예술을 구하라’라고 적힌 피켓 등에서 애나 루카스는 근래 예술 교육 시스템상의 기후변화를 감지한다. 즉, 기술이 발전하고 새로운 매체가 등장함에 따라, 여태까지 지속되어 온 예술학교의 모델이 도전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예술이 되기에는 모든 것이 다 좋다’는 식의 ‘과도한 미학적 관용’으로 인해 미에 대한 가치체계에 중심이 사라짐으로써 역설적으로 그 중심에 자본의 시스템이 끊임없이 작동되고 있음을 또한 상기시킨다. 교육 서비스의 소비자로서 학생들은 예술계에 접근하기 위해 상당량의 자본을 필요로 하고 예술대학은 대학 내 구조조정의 손쉬운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본에 대한 비판마저 그 중심 없는 중심 속으로 끊임없이 수렴되어 버리는 자본의 작동기제 안에서 예술의 역할과 방향은 의문시되기 마련이다.

박희자는 교환학생으로 체코에 머무는 동안 사회 속에서 예술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생산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서 예술학교 내 공간에서 어떤 경계에 위치한 사물들, 가령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놓여진 것인지 버려진 것인지 모호한 것들, 특정 개인의 것이지 만 모두의 손에 닿을 수 있는 대상 등을 촬영한다.

전지인 또한 〈alpha 1- 조금 초라하지 않게〉(2009/2016)에서 보관중인 것인지 잊혀진 것인지 모호한 교내의 작품들을 찾아내어 그것들을 하나씩 정성껏 청소하고 그 위치를 지도에 가시화한다. 그녀는 작품에 대한 작품이라는 메타적인 접근을 취함으로써 학기 중에 진행한 작업의 결과를 보여주는 관례적인 교내 행사인 ‘오픈 스튜디오’에서 보는 이들이 개별 작품의 결과에 집중하기보다 제도적 공간 자체를 다시금 살피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By photographing the empty spaces and objects in the art school, Anna Lucas and Heeza Bahc discuss the permeating languor. In objects left in the work space such as chairs and walls splashed with paint, easels arbitrarily standing in groups, partitions made of plywood boards, a picket written ‘SAVE the ARTS’ and more, Anna Lucas senses a climate change in the recent art education system. In other words, as technology develops and new media appear, the art school model maintained so far is being challenged. This reminds how postmodernism’s excessive aesthetic tolerance that ‘everything can become art’ has removed the center of the aesthetic value system, and how paradoxically the system of capital has been constantly working in the center. As consumers of education services, students need a fair amount of capital to access the art world, and in a competitive system, art schools become easy targets of restructuring inside colleges. In the capital’s operating mechanism where even criticism against capital is incessantly converged into a centerless center, it is certain that art’s role and direction should be questioned.

During her time as an exchange student in the Czech Republic, Heeza Bahc had doubts about whether art can produce meaning and value in society. With this doubt, she photographed inside her art school, objects located on boundaries, objects ambiguous of whether they are intentionally left or abandoned and objects that are a specific individual’s yet are also reachable to everyone.

In her *alpha 1 - not so miserably* (2009/2016), Jiin Juen finds objects on her campus that are vague in terms of whether they have been kept or forgotten. Then she carefully cleans them one by one and makes their location visible on the map. As an artwork about an artwork, she takes a meta approach; in the conventional school event ‘Open Studio’ where people show their works made during the term, the artist leads the viewer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 space itself rather than to concentrate on the individual works of art.



Sodam Lim

임소담

행성은 자신이 돌던 궤도를 지속적으로 돌 뿐이지만 관찰자가 특정 위치에 있을 경우 일식과 같은 기묘한 현상을 드러내기도 한다. 관찰자의 시점이 중요한 반면에 작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현상이기도 하다.

나는 전달이 불가능한 개인의 감각에 대한 기억과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틈 사이의 영역에 관심이 있어왔다. 그렇지만 사이에 대한 관심은 그것을 언급함으로 인해 영토화되기 때문에 일방적이고 직선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세계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마치 과거의 기억에 관해 묘사할수록 기억이 중첩되어 변형되는 것과도 비슷하다.

나는 캔버스와 나 사이에 원하는 심리적 거리감을 조성하여 이미지가 떠오르기를 바란다. 심리적 거리감은 개인의 기억뿐만 아니라 질료에 대한 숙련도나 대상의 생명력 등 외적인 요인과의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프로세스로 작업을 할 수 없는 순간이 필연적으로 생긴다. 이것은 대상에 대해 관조적인 시선을 유지하려는 자세와는 차이가 있으며 작가가 스스로를 변화하는 장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그로부터의 거리를 끊임없이 확보하려는 시도이다.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최초의 목적에서 벗어나 신체가 반영될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기며 나아가서는 이미지가 나를 관통한다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그 대상이 스스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관람객이 될 때 과거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것으로부터 나아가 경험으로서의 회화가 가능하다고 느낀다.

A planet consistently rotates its orbit, but when the observer is in a particular location, the planet exhibits odd states such as the eclipse. Though the observer's point of view is important, it is a state that cannot be made artificially.

I have always been interested in the in-between area of the undeliverable memories of the individuals' senses and the unnamed gap; however, because mentioning the in-between area would fix it, my interest in this area feels like a world that does not allow any one-sided or straightforward approach. It is as if the more we portray our past memories, the more the memories overlap and therefore transform.

I hope an image comes up as a psychological sense of distance built between me and the canvas. This psychological sense of distance is related not just to an individual's memory but also to external aspects such as material proficiency and the object's vitality. Thus inevitably, there comes a moment when I cannot work within a fixed process. This is different from an attitude that tries to maintain a contemplative view of the object; it is an acknowledgement of the artist's changing position and at the same time an attempt to continually ensure distance from the object.

The act of painting finally gains meaning when it breaks away from its original purpose and reflects the body. Furthermore, when it feels like the image is penetrating me, and when I become the audience watching the object change itself, painting becomes more than a representation of a past image and becomes a painting of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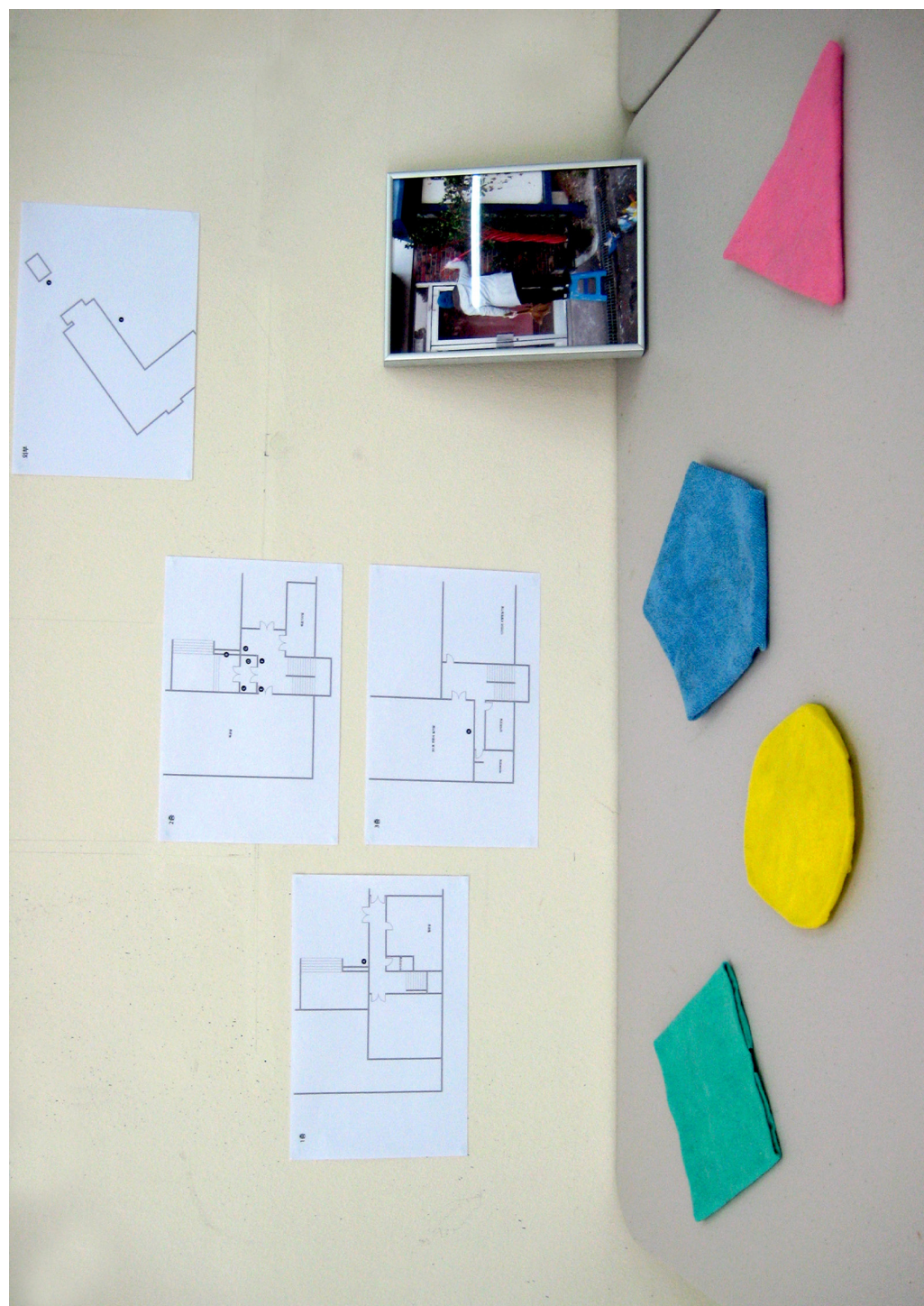
Blue Pot

2014, 37.9x45.5cm,
Oil on canvas

Winter Forest
2014, 37.9x45.5cm,
Oil on canvas

임소담





Jiin Juen

전지인

2016년 전시를 시작하며
2009년 전시를 불러온다.

By beginning the 2016 exhibition,
I bring the 2009 exhibition.

「Open Studio」는 매년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에서 열리는 전시다.

1년 동안 작업한 작품들을 보여주는 전시로, 각자의 스튜디오를 개방하여 진행한다.

나는 관람객이 석관동 캠퍼스를 찾아 작가의 스튜디오에 도착하는 여정 속에 풍경처럼 비치된 정물들(이 정물들은 건물 구석 빈 공간을 찾아 보관중이거나, 버려졌거나, 주인들에게 잊혀진 작품들이다)의 위치를 표시하여 지도를 만들었다.

이 지도는 오랜 시간 풍경으로 존재했던 정물들이 잠시 있던 곳에서 분리되어 온전한 정물로 관람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더불어 먼지도 털고, 걸레로 닦아 단장을 마친 정물들이 전시기간 7일 동안 관람객들의 목적지가 되어 지도 안에서 빛날 수 있기를 소망한다.

'Open Studio' is an exhibition that opens every year by the graduate students of the school of visual arts i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e students' studios are opened for this exhibition to show their work over a year.

I have made a map for the audience that come to Seokgwan-dong campus. This map has the location of the objects that are installed like scenery on the way to the artists' studios; these objects are objects forgotten, abandoned or kept by the owners who were looking for an empty corner space to put them.

This map will give the objects a chance to meet the audience as a whole by separating the objects for a while from where they used to be as scenery. Furthermore, I hope the objects that have been dusted, wiped and adorned, will shine as they become the destination of the audience during the seven days of the exhibition.

alpha 1 - not so miserably

2009 (2016 reproduction), Dimensions variable,
Cleaning tools, map, sound installation

*Collaboration with Hojeong Yoo (Sound designer)

어느 날 문득 내 물건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느꼈다. 사물과 도구가 용도와 형태 등으로 드러내는 방향성을 느꼈다.

그렇게 공동 작업실에 가득한 물건의 시선을 느꼈다. 그 뒤론 그것이 습관처럼 내게 행해졌다. 나의 것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물건들에게 관심이 갔다.

물건들을 보다 보면 그것들이 사용자에 의해 조금씩 변형되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된다. 붓 하나를 보더라도 어떤 이는 붓을 눕혀놓고, 어떤 이는 통 안에 집어 넣고, 어떤 이는 뒤집어 놓는다. 또 테이프를 붙여놓기도 하고, 이름을 써서 자신이 알아볼 수 있게 하기도 한다.

대학교 4학년, 졸업전시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내가 다니던 학교 사람들은 분주히 움직였다. 나는 학생으로 내내 남과 다름을 찾았지만, 결국은 난 그 속에서 '같은 곳을 보아라' 라고 보고, 듣고, 따르고 있었다. 나처럼 그토록 남들과 달라지려 노력하는 듯 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의 점으로 느껴졌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선을 그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것에서 내 관심은 집단이 갖는 의지와 방향성이다. 그리고 사물, 도구들에 집중하며 그것들을 관찰, 수집, 배열하면서 집단과 개인들을 드러내 보고 싶었다. 이 작업은 그것들을 단순히 모아 놓고 보면 그들은 아름다울 수 있는가, 그들은 더 무엇을 이야기 할 수 있을까, 하나의 방향을 따르는 집단 안에서 개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얼마만큼의 개성을 드러내는가 하는 고민과 실험이었다.

선이라는 것은 '시선'에서 '시' (視:볼시)를 뺀 단어다.

이것은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되어질 작업들 중 하나이다. 작업은 설치가 될 수도, 사진이 될 수도 있다.

One day, I suddenly felt like my things were looking at me. I felt the sense of direction the objects and tools showed through their use and form.

Like this, I felt the gaze of the things filling the shared workplace. After that, it happened to me like a habit. Not only did my interest go to my objects, but also to the many objects surrounding me.

When I look at things, I realize how they transform and adjust due to the user. Even when looking at a brush, one lays down the brush, another puts the brush inside a case, while someone leaves it upside down. Others stick a tape on the brush, or write their name on so they can recognize it.

4th year at university, people in my school busily moved entitled with the 'graduating exhibition.' As a student I was always looking for my difference from others, but in the end I was following, listening and looking at the same place. The many people who looked like they were trying to become different as I did, all looked like one dot. I thought that I should gather those dots and draw a line.

I am interested in the will and sense of direction the group has. By concentrating on the objects and tools and by observing, collecting and arranging them, I wanted to reveal the groups and individuals. This work was a consideration and experiment of whether they could be beautiful and could talk more when simply brought together. It is also about the kind of story the individual tells in a group that follows one direction and how much individuality is displayed.

The word 'line' in korean is '선(seon)', and in this case, '선(seon)' comes from the korean word for gaze, '시선(siseon)' without the '시(si)' which means 'to look'.

This as a project, is one of the works to be proceeded. This work could be an installation or could be a photograph.







Anna Lucas

애나 루카스

학생들을 가르치는 예술가로서 내게 주어진 일을 이해하고, 예술학교에서의 나의 위치와 목적을 밝히기 위해 나는 카메라로 그곳의 공간들과 활동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교수로서 요구되는 조력자, 지식과 조언의 전달자로서의 역할과는 대조적으로 나는 나 자신의 무언가를 만들 필요성을 느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기관의 관료주의 속에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관찰을 통해 나는 내가 겪었던 예술학교의 경험들, 이를테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미지를 프레임링 하는지, 대상, 기호, 흔적, 질감의 측면에서 어떤 것에 이끌리고 어떤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지와 같은 것들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볼 수 있었다. 나는 학생이던 때 이후로 마주한 적이 없었던 연습실인 워크숍 공간에 이끌렸다. 지난 40년 동안 미술학교에 다녔거나 가르친 학생과 선생님이라면 그 공간이 가진 요소들과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것이다. 하지만 더 일반적인 관람객에게 그 공간은 어떻게 인식될까? 우리는 예술학교에 대한 우리 자신의 경험을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걸까? 예술학교는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 그것은 열린 창의성, 근본적인 물음, 반동적 탈피로, 혹은 어쩌면 쓸데없는 취미, 소수의 엘리트층을 위한 비직업적 놀이터, 실용적인 기술이 없는 가망 없는 이들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더 널리 인식될까?

현재의 기후는 이런 질문들을 열어놓는다. 높은 대학 등록금과 그보다 더 높은 책임, 생산성, 평가 등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술 대학은 지원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예술을 위한 기금이 급격하게 삭감되어 예술 교육은 학교 커리큘럼에서 상당히 축소되었다. 그렇다면 10년 후에는 누가 예술학교를 지지할 것이며, 누구에 의해 어떤 것들이 가르쳐질까? 취업이라는 목표, 성적, 환원적인 통계 결과가 학업 성취평가의 주요한 가치인 곳에서 위험부담과 실패를 감수할 만한 여지가 남아 있을까?

I started by using my camera to trying to make sense of a new job as an artist academic, filming the spaces and activity within this Art School in order to clarify my position and purpose there. I needed to be making something of my own in counterpoint to the demands of my role as tutor – facilitator and deliverer of knowledge and advice, and more specifically to retain my identity as an artist within the bureaucracy of the Institution. These observations made me reflect on my own Art School experiences; how I might be framing an image, what I was drawn to or valuing in terms of objects, signs and traces, texture and colour. I was drawn to workshop spaces for disciplines I have not encountered since being a student. Any ex-art school student or teacher from the last forty years will recognize aspects of these spaces and what they represent. But how are they perceived by a more general audience? Do we romanticize our own experience of art school? How is art school viewed by others? Is it more broadly recognized as a space of open creativity, radical questioning, or rebellious abandon, or perhaps as an unnecessary hobby, a non-vocational playground for an elite few, or a stop-gap for no-hopers without useful skills.

The current climate leaves these questions open. On one hand Fine Art courses are attracting applicants despite University fees and much higher demands for accountability, productivity, assessment etc. On the other, funding for the arts is dramatically cut, and the teaching of art significantly reduced within the school curriculum. So who will Art School be for in ten years, and what will be taught, and by whom? Will any space for risk-taking and failure remain in a climate where recruitment targets, grades, and reductive statistical results are the key values for assessment of a students achievement?

Art School

2015, 12 mins colour stereo,
16mm transfer to HDV



Art School
2015, 12 mins colour stereo,
16mm transfer to HDV

Anna Lucas



Heeza Bahc

박화자

이번 작업은 나의 무력감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체코에 머무는 동안 새로운 환경에서 예술에 대한 다른 태도를 익혀야 하는 환경적, 심리적 압박과 함께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사회 안에서 과연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지, 예술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는 유일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바라보기를 시작하였고, 나의 시선은 예술학교 안 중간지대, 예술 공간이면서도 그렇지 않은 곳, 거대한 예술덩어리(건물) 안 개인의 공간에 집중하였다. 그러는 동안 무언가는 예술품으로서 무언가는 쓸모 없는 채로 놓여져 균형이 맞지 않은 사물들이 눈에 들어왔다. 사적이면서 동시에 공적인 공간에 놓인 사물들은 누군가에 의해 놓여졌지만 마치 본래의 자리인 것처럼 그 자체로 내적인 힘을 갖고 공간을 점유하고 있었다.

사적인 경험에 닿아 있는 사물들, 다른 사람의 손길 이 닿아있지만 마치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듯한 대상들, 버려진 것인지 보관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사이의 긴장감. 이렇게 스스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대상들을 찬찬히 살펴으로써 그것들을 둘러싸고 개념들을 새로이 사고해보는 것, 사물(예술품)들을 지각하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 이번 작업을 통해 질문하고자 하는 바이다.

This work started from my feeling of powerlessness. While I was living in Czech, I had psychological pressure to become familiar with the new attitude towards art in this new environment. In a completely unfamiliar society, I had doubts of whether I was able to produce any meaning or value from everything I was doing in the name of art and also of what art is.

Hence I began to do the only thing I could do which is to gaze. My gaze concentrated on the obscure, middle area inside the art school, a place where it is a space of art and not a space of art and the individual space inside a huge art chunk(building). Meanwhile some things came into my eyes as art, while some things came in as unbalanced objects left useless. The objects laid in a private yet public space, have been placed by someone; however, the objects are situated there with a kind of strength as if it was its original place.

Objects that are close by private experience, objects that are touched by other people's reach yet seem to exist independently, the in-between tension of whether it was thrown away or kept. Through this work, I would like to consider the ideas surrounding the objects and question the way I perceive these objects(art pieces) by carefully examining the objects occupying their places.

It: Art School Project no.23

2015, 80x60cm,
Archival pigment print

It: Art School Project no.12
2015, 70x100cm,
Archival pigment print

It: Art School Project no.26
2015, 32x44cm,
Archival pigment print

박희자



김다겸
(b. 1986, 서울)

학력
201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 전공
석사 과정 재학중
2014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조형예술 전공 졸업

주요 개인전
2016 거지같은 작업, 공간 가변크기, 서울

주요 단체전
2016 FIRST AIDKIT, 갤러리 밈, 서울
2014 이곳이곧, 서울과학기술대 100주년
기념관, 서울

프로젝트
2015 John Speaks, 테이크아웃드로잉, 서울

Dakyum Kim
(b. 1986, Lives and works in Seoul)

Education
2015~ Studies Fine Art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Seoul, Korea
2014 BFA in Fine Arts, College of Art & Desig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6 *Work like a beggar*, Dimension variable,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6 *FIRST AIDKIT*, Gallery Meme, Seoul,
Korea
2014 *Igot igot*(This place soon),
The 100th Memorial Hal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Seoul, Korea

Project
2015 *John Speaks*, Takeout Drawing, Seoul,
Korea

박희자

(b. 1982, 서울)

학력	
2014 ~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재학중
2006	서울예술대학 사진과 졸업

주요 개인전	
2015	아무렇지 않은 내일을 위한 탐구,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울
2013	The Women of Island, 갤러리가비, 서울

주요 그룹전	
2015	ŠSC – Šaloun social club, 스트라호브 경기장, 프라하, 체코
2015	Contemporary art ruhr (C.A.R), Sanaa, 에센 졸버레인, 독일
2014	예술모텔 777호: 열정을 위한 다시, 양주시립미술관, 경기
2014	RED-ROSE CHAIN, 스페이스캔 오래된집, 서울
2014	9개의 방, 더텍사스프로젝트, 서울
2013	[I=EYE], 키미아트, 서울

Heeza Bahc

(b. 1982, Lives and Works in Everywhere)

Education	
2014 ~	Studies Visual Art, Graduate Schoo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2006	BFA in Photography, Seoul institute of the Arts,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5	<i>Test for Indifferent Tomorrow</i> , Seogyo Art Center, Seoul
2013	<i>The Women of Island</i> , Gallery gabi, seoul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5	<i>ŠSC - Šaloun social club</i> , Strahov Stadium, Prague, Czech Republic
2015	<i>Contemporary art ruhr (C.A.R)</i> , Essen Zollverein, Germany
2014	<i>Art Motel No. 777: Tea Time for Passion</i> , ChangUcchin Museum of Art Yangju City, Korea
2014	<i>RED-ROSE CHAIN</i> , Space can Old-house, Seoul
2014	<i>Nineteen Rooms</i> , The TEXAS Project, Seoul, Korea
2013	<i>[I=EYE]</i> , Kimiart gallery, Seoul, Korea

애나 루카스

(b. 1970, 영국 런던)

학력 및 경력	
2009	현재조형예술 전공 조교수, 드 몽포르 대학교, 레스터, 영국
2009 ~ 2015	무빙 이미지 패스웨이, 영국 왕립예술학교, 런던, 영국,
1993	조형예술(조각) 전공, 셰필드할람대학교 졸업, 셰필드, 영국

주요 개인전, 펠로십	
2009	Demonstration 50.15 & 침묵과 어둠의 땅, 웰컴 트러스트 펠로우쉽, 옥스퍼드 대학교 영국/ OVADA 갤러리, 영국/ 뉴욕/ 카셀 영화제 상영
2007	Here and Your Here, FACT, 리버풀, 영국
2004	표류하는, 치즌헤일 갤러리, 런던, 영국/ 글린 비비안 아트 갤러리, 스완지, 영국/ 보얼예술특구 2, 가오슝, 타이완
2003	Bud, 스파이크 아일랜드, 브리스톨, 영국/ 안나 슈왈츠 갤러리, 멜버른, 오스트레일리아

주요 그룹전, 스크리닝	
2015	아트 스쿨, 앤솔로지 필름 아카이브, 뉴욕, 미국
2014 ~ 2015	에섹스 로드, (큐레이터: 테레사 그라임스), 런던, 영국
2010	이야기가 죽인 것들, 위트스터블 비엔날레/ 리즈 픽처하우스/ 래티튜드 페스티벌, 서퍽, 영국/ 오프 앤 프리 국제영화제, 서울, 한국

—
본 작가의 영상 배급은 LUX에서 맡고 있습니다.

Anna Lucas

(b. 1970, UK. Lives and works in London)

Education & Employment	
2009 ~	Senior Lecturer Fine Art, Lens Based Media, De Montfort University, Leicester
2009 ~ 2015	Moving Image Pathway, Royal College of Art
1993	1st class BA Hons Fine Art (sculpture), Sheffield Hallam University, UK

Selected Solo Exhibitions & Fellowships	
2009	<i>Demonstration 50.15 & Land of Silence and Darkness</i> , Wellcome Trust Fellowship, Oxford University, UK, OVADA Gallery, New Work UK and Kassell Film Festival
2007	<i>Here and Your Here</i> , FACT, Liverpool, UK
2004	<i>Adrift</i> , Chisenhale Gallery, London, UK, Glynn Vivian, Swansea UK, The Pier 2 Art Centre, Taiwan
2003	<i>Bud</i> , Spike Island, Bristol, UK, Anna Schwartz Gallery, Melbourne, Australia

Selected Group Exhibitions, Screenings & Events	
2015	<i>Art School</i> , screening at Anthology Film Archives, New York, USA
2014 ~ 2015	<i>Essex Road</i> (Commission curated by Teresa Grimes), Tintype, Essex Road, London, Uk
2010	<i>Things that had stories rubbed out</i> , Whitstable Biennale, Leeds Picturehouse, Latitude Festival, UK Off and Free Festival, Seoul

—
The works of Anna Lucas are distributed by LUX

임소담
(b. 1985, 서울)

학력	
2009	국민대학교 회화전공 졸업
주요 개인전	
2015	Eclipse,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2011	Rainforest, 상상마당, 서울
주요 그룹전	
2014	시간의 향기, 금호미술관, 서울
2013	Hidden dimension,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2013	Here in, LIG 아트 스페이스, 서울
2012	도시유람기, 신세계갤러리, 서울
2011	달의 뒷면, 갤러리 스케이프, 서울
2009	서교육십_인정게임, 상상마당, 서울
2009	Class of 2009, DoArt, 서울

<http://limsodam.com>
sodam1216@naver.com

Sodam Lim
(b. 1985, Lives and works in Seoul)

Education	
2009	BFA in Fine art,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5	<i>Eclipse</i> , Gallery Skape, Seoul, Korea
2011	<i>Rainforest</i> , Sangsangmadang,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2014	<i>Duft der Zeit</i> , Kumho Museum of Art, Seoul, Korea
2013	<i>Hidden Dimension</i> , Gallery Skape, Seoul, Korea
2013	<i>Here in</i> , LIG art space, Seoul, Korea
2012	<i>Urban Wanderers</i> , Shinsegae Gallery, Seoul, Korea
2011	<i>The far side of the moon</i> , Gallery Skape, Seoul, Korea
2009	<i>Seokyoisixty: the game of respect</i> , Sangsangmadang, Seoul, Korea
2009	<i>Class of 2009</i> , Gallery DoArt, Seoul, Korea

전지인
(b. 1979, 서울)

학력	
2010	한국예술종합학교 미술원 조형예술과 전문사 졸업
2003	계원조형예술대학 매체예술과 졸업
주요 개인전	
2014	Between you, 갤러리175, 서울
2008	inter, 가 갤러리, 서울
주요 그룹전 및 스크리닝	
2016	동시상영: 공간의 진술, 오픈박스, 서울
2015	유랑 예술단 프로젝트 별마중, 콘크리트 플랫폼, 강릉
2013	두 개의 집 프로젝트, 권진규아뜰리에, 서울
2009	미디어-아카이브 프로젝트, 아르코미술관, 서울
2008	IAS 미디어 스크리닝 2008, 필름포럼, 서울
2007	배신이 기다리고 있다: 윤사비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 인사미술공간, 서울

<http://juenjiin.com>
new20441@gmail.com

Jiin Juen
(b. 1979, Lives and works in Seoul)

Education	
2010	MFA in Visual Art, School of Visual Art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Korea
2003	BFA in Media Art, Kaywon School of Art & Design, Uiwang, Korea
Selected Solo Exhibitions	
2014	<i>Between You</i> , Gallery 175, Seoul, Korea
2008	<i>Inter</i> , Ga Gallery, Seoul, Korea
Selected Group Exhibitions & Screenings	
2016	<i>Screening Project: Dongshi Sangyoung</i> , Seoul, Korea
2015	<i>Greeting Sunshine</i> , Concrete Platform, Gangneung, Korea
2013	<i>The Tale of Two Houses</i> , Kwon Jinkyu Atelier, Seoul, Korea
2009	<i>Media-Archive Project 2009</i> , Arko Art Center, Seoul, Korea
2008	<i>IASmedia Screening 2008</i> , Film Forum, Seoul, Korea
2007	<i>It May Betray You: Yunsabistudio Residency Program</i> , Insa Art Space, Seoul, Korea

비인칭적 삶

기간 | 2016. 5. 5. - 5. 18.

장소 | 갤러리 175

기획 | 손송이

작가 | 김다경, 박희자, 애나 루카스,
임소담, 전지인

협업 | 유호정(사운드 디자인)

번역 | 남원정

설치 | 엄철호

디자인 | 진지

인쇄 | 가람미술

Impersonal Life

Date | May 5-18, 2016

Venue | Gallery 175

Curator | Songyi Son

Artists | Anna Lucas, Dakyum Kim, Heeza Bahc,
Jiin Juen, Sodam Lim

Collaboration | Hojeong Yoo (Sound design)

Translation | Wonjung Nam

Technical Coordination | Chulho Yeom

Design | Jinji

Printing | Garammisul